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지원부 정비

정읍시가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 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불일치한 농지원부에 대해 3개월간 우선 순위를 정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정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한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고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정례회 완료

부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제 3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장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해역에서 대형 근해 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 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건의문을 낭독한 산업건설위원장 오장환 의원은 "대형 근해 어선의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으로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해 대형 근해어선이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 구역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영세 연안 어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형 근해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반드시 삭제해 줄 것"을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한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2년동안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애절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드린다"며 마무리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아 상상력 · 창의력 쑥쑥

정읍시, 정읍사공원 일원 '유아 숲 체험원' 개원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통해 전인적 성장도와

정읍시가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유아 숲 체험원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정 연기됐던 유아 숲 체험원을 참여자들의 안전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지난 17일 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읍사공원 일원에 조성된 유아 숲 체험원은 유아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이 숲을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만지고 보고 느끼는 등 오감을 통해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숲 놀이터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읍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유아 숲 체험원은 숲속 단풍나무와 소나무 등을 활용한 체험공간과 통나무다리, 건너기, 네트 오르기 등으로 모험심과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유아 숲 체험원은 숲속 단풍나무와 소나무 등을 활용한 체험공간과 통나무다리, 건너기, 네트 오르기 등으로 모험심과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숲에 사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숲 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

올해 11월까지 2명의 산림교육 전문가가 매달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6월 프로그램은 숲속 자연물을 이용한 '가족 얼굴 꾸미기'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완료한 정기반 외에 수시반도 운영해 지역 내·외 더 많은 유아들이 숲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유아들의 인성과 창의성, 면역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정읍사공원 유아 숲 체험원의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이용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아 숲 체험원(☎063-532-2888) 또는 담당 부서(☎063-539-5774)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렵던 유아들이 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센터장 장우철)는 지난 18일 농촌지역 내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지역 내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고창군로컬JOB센터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업무협약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와 전북노인일자리센터(센터장 장우철)는 지난 18일 농촌지역 내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창군내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전북노인일자리센터 회의실에서 고창군로컬JOB센터 김희진센터장과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장우철센터장 등 양 센터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공동 발굴 및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을 통해 양 센터가 고창지역 내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공동노력 ▲양 기관간 일자리정보 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해 농촌지역 내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과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기관으로서 도내 노인일자리 확대와 취업알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창출하는 전문가이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장우철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센터가 고창지역 내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과학 기술 활용 축산악취 타파 '속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국가사업 반영 한뎨

정읍시가 과학 기술을 활용한 축산 악취 타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7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 대책 추진 5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쏟겠다는 의지다.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지난 19일 신정동 연구단지에서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20일 중앙부

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방문해 120억 원 규모의 '방사선분해 기반 축산악취 처리시스템 개발사업'을 내년도 국가사업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1년 국가예산 반영에 긍정적인 검토에 이어 기획재정부 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선분해 기술은 물리적·화학적 처리가 제한적인 악취

가속기를 이용해 고에너지 방사선을 투과시켜 단시간에 분해하는 시스템이다. 시와 연구소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저항성 미생물을 개발해 기존 방식으로는 60% 내외에 불과했던 악취 저감 효과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이동식 전자선 가속기인 '이동형 전자빔을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기술'에 대한 현장을 살펴보고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공조 체계 확립을 구상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청년 행정인턴 15명 선발

부안군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청년과 방향을 맞춘 대학생에게 공공기관 직무체험 및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행정인턴 15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고 밝혔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으로 공고일 전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2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또는 읍·면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7월 2일 공개 전 산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청년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면 군청과 읍면 사업소 등에서 행정업무보조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 발전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하게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남당희맹단 모충사 참배

"도 지정문화재 신청 노력"

유기상 고창군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흥덕면 남당희맹단(南唐希맹단) 모충사를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지난 19일 유기상 고창군수는 흥덕면에서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진행하고 면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에 애썼다. 특히 흥덕면 용반리 남당희맹단과 모충사를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맹단으로도 불리는 남당희맹단은 1592년(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채흥국 등 고창지역 300여명의 선비와 양민들이 구국의 기치로 의병을 창의하면서 삼혈동맹을 하고 쌓은 맹단이다.

당시 300여 명의 의병이 모여, 단(壇)을 쌓은 뒤 백마(白馬)의 피를 마시며 다섯 가지의 맹약을 내걸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다짐했다고 전한다.

현재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제4호로

지정돼 있다.

이날 유기상 군수는 "남당희맹단의 굳은 맹세처럼 국난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의로운 도시 고창을 빛내는 남당희맹단의 전북도 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기상 군수는 이른 더위에 고생하는 면민들의 영농현장을 찾아 다니며 면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애썼다.

자원봉사센터와 흥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봉사를 함께하며 이른 더위와 장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손길을 더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